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영화의 역할 : 현대 한국 정치사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주희¹

¹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The Role of Movie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Happening : Focused on 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History

Ju-Hee Han¹

¹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46241,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정치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몰입도와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영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영화는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를 전파하기에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수단 중 하나이면서,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보조수단으로써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 특히 시각적 이미지화의 인식은 사고의 인식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과학적 근거에서 볼 때, 영화를 통해서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활자의 정치현상보다 높은 이해도와 몰입도를 가져와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시킴으로써 공론화되기도 하며, 역사적 사건이 영화 속에서 재현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당대의 지배 신념이나 사상의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인간행위의 집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오늘날의 정치현상들도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이 재현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한국정치사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을 영화라는 콘텐츠와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used movies to improve the students' immersion and interest in political classes. Movie is one of the most common and most powerful means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that occur among humans. And it is the most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Especially, the recognition of visual images proceeds more easily and faster than the perception of thought. Understanding the political happening through movie can get double effect because of the high understanding and immersion. Above all, movies can penetrate into people's minds because they become a ideological. Therefore, it is publicized and also historical events are reproduced in movies. Likewise, politics is also based on the role of the thought or dominant beliefs, and public opinion is formed to justify various groups of human activities. It shows that today's political happening is not a new, but the historical phenomenon of the past are reproduced. Based on this, to discuss modern Korean political history through movies.

색인어 : 한국 영화, 한국 정치, 정치현상, 교육적 콘텐츠

Key word : Korean movies, Korean Politics, Political happening, Educational Contents

<http://dx.doi.org/10.9728/dcs.2017.18.6.109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8 September 2017; Revised 11 October 2017

Accepted 25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u Hee Han

Tel: +82-51-510-3845

E-mail: hjh38317@hanmail.ne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정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이면서, 공동생활에서 상호간의 투쟁과 조정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사회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퇴색화 시키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귀결시켰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치과정의 거대화과 복잡화, 비인격적으로 진행되는 일의 분업, 정신의 수동화, 매스미디어의 대중조작이 만들어 내는 대중의 비정치적 역할, 당파의식 혹은 집단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쟁적 사회형태 속에서 인간의 정치적 활동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본질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자치인 만큼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원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정치적 무관심은 버려야 한다. 특히 정치관련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정치에 대한 흥미와 몰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대체로 텍스트에 의지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선험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배움의 과정에서 이해와 몰입, 흥미 등의 학습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이라는 말처럼 정치현상을 기계적 현상처럼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다양한 인간들이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심지어 관심이 없는 정치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결국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의 자극을 영화를 통해 획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영화인가?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사람들 사이에 무수한 교류 속에 오고 가는 정보를 전파하기에 쉽고 빠른 가장 보편적인 매체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 있는 수단 중의 하나[1]이며,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어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 더욱이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영화라는 콘텐츠는 더 이상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의미를 떠나 정보의 공유 및 지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영화를 통해서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영화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영화의 활용도가 학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느냐의 쟁점이 바로 이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영화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이다. 대중성을 잃지 않는 영화, 즉 대체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선정한다. 이것은 학습에 대한 보편적이고 접근의 평등성에 기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하고, 상호대화가 가능한 잘 알려진 영화를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최신의 영화를 선정하여 그 접근성을 쉽도록 한다. 교육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고전영화나 교훈적 측면이 강조된 영화는 자칫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가속화 시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몰입도가 저하된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영화 텍스트 분석방법(close textual analysis)으로 교육적 콘텐츠를 만들고 문헌 연구를 통해 객관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 구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흔히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정치사를 설명함에 앞서 '현대'의 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대체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를 현대의 시작으로 보는데, 해방 70년이 지나고 있지만, 주요한 정치적 과제 즉 분단의 문제가 아직 해결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정치 집단이나 세력이 전개해온 정치활동의 기본적인 대립구도가 무엇이었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2] 이에 따라 첫 번째 시기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3년 한국 전쟁의 휴전까지의 이념적 혼란의 해방정국의 시기, 두 번째 시기는 1953년 휴전 이후부터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까지 그 과정에서 독재의 그늘에 억눌린 국민들의 희생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던 시기, 세 번째 시기는 민주화 항쟁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발전되어 가는 민주화 속에서 다양성을 내포하는 한국의 정치현상들이 등장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영화의 교육적 콘텐츠의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의 영화는 <태백산맥>(1994), <태극기 휘날리며>(2003) 등이다. 두 번째 시기의 영화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2), <효자동 이발사>(2004) 등이다. 세 번째 시기의 영화는 <크로싱>(2008), <완득이>(2011), <도가니>(2011), <더킹>(2016) 등이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통해서 영화라는 콘텐츠가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주요한 교육적 도구가 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II. 본론

2-1 영화의 일반적 개념

영화는 1895년 최초로 인류에게 등장하였고, 화면을 통해 표현되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운드를 포함한 영상기법은, 재 구현된 인식이 관객의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발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3] 여기에 영화는 누군가의 사고를 거쳐 화면에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가치관에 따라 영화가 내포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자

신이 살고 있는 과거로부터, 미래로부터 혹은 당대의 가치를 조명하여 시대정신과 권력관계 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혹은 이를 수용하는 이의 반응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하여 나타나며, 이를 동시에 다수가 엿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삶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영화가 가지는 사회적 특성과 미학적 특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4] 영화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일찍이 장 룩고다르(Jean Luc Godard)는 20세기는 영화 없이는 사유될 수 없을 만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화는 우리의 현실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영화는 정치적이라고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영화가 현대인의 삶 속에 오락적 부분이든 지식적 부분이든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영화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2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영화의 역할에 대한 접근성

1) 이데올로기화

영화는 종종 온전한 미학적인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역사가나 동시대인들에게 있어 보다 중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망을 파생시킨다.[5] 즉 영화가 당대의 문화와 예술로써 이데올로기화 되어 쉽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중적 투쟁을 유도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독일이 1920년대까지 영화 강국이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는 영화가 나치즘의 정치적 수단으로 선전·선동을 손쉽게 전개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북한의 김일성도 1946년 첫 기록영화를 만들어 우상화시도를 본격화하였다. 1980년대부터 김정일은 세습을 염두에 둔 기록영화들 제작과 더불어 <영화 예술론>이라는 지침서까지 펴내면서 시네폴리티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북한은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방대한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가 필요할 때, 즉 정권의 정당성,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강조, 체제 수호 보장 등을 받기 위해 영화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처럼 영화라는 장르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를 창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영화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그 사회적 관련성은 이미 이번 세계 초 지성사 전개에서 적잖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파급효과 역시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6] 따라서 영화는 현 세계에서 대중사회에 차지하는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나 기분전환의 역할을 뛰어 넘어 문화의 계층별 층화와 그 사회적

분화에 썩기를 박을 만큼 편재적이고 보편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변의 어느 장르보다도 수용과정상의 상대적 용이함과 문화적 접근의 평등성 때문에 영화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은 크다.[7]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영화라는 것이 사고의 인식보다 시각적 인식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과학적 논리로 인해 영화는 더욱더 이데올로기화로 되기 쉬워진다. 예컨대 할리우드 영화 속에 성조기의 찰나의 등장은 분명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적 효과이다.[8] 일찍이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영화를 ‘친선의 대사(ambassador of good will)’라 명명했듯이, 할리우드 영화는 국제정치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데올로기 전파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9] 따라서 이미지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 현재적 실물보다 훨씬 장대한 모습으로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이미지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면서 그들의 영상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10] 이외에도 영화 <귀여운 여인>(1990)은 로맨스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계급,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인종에 대한 차별 등의 이분법적인 편견과 남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양산해 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능력이다.



그림 1. 영화 '스파이더맨3'의 한 장면
Fig. 1. A Scene from movie 'Spider-man3'

2) 사적 영역의 공문화

최근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주제의 고갈화로부터, 혹은 신선한 소재가 가져다주는 영화의 상업성을 철저히 반영한 것이다. 즉 사적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이성 때문인데, 사실 영화는 장르의 고정화 속에서 되풀이 되는 진부함과 편견의 위험성을 줄이고 새롭게 전개되는 내러티브를 통해 관객의 흥미 유발과 호기심의 충족의 좋은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영역의 영화화는 지나친 영화산업의 상업화에 매몰되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영화가 가지는 파급력은 그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인들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사회 전체에 커다란 반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 영화 <도가니>(2011)가 있다. 실제로 2005년 일어난 광주 인화학교의 사건을 다루었는데, 당시 이 사건은 은폐되거나 축소되면서 관련자들은 가벼운 처벌만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이후 많은 관객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인화학교의 시설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대중의 공감을 얻고 급기야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이른바 ‘도가니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고 시행까지 이루어졌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이것은 개인의 사적인 불합리한 경험들이 영화를 통해서 집단적 경험으로 나누게 되고, 대중들을 자극함으로써 공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중들은 일련의 집단 정체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영화 속의 개인적 불합리성은 영화 밖으로 도출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들의 실천적 행동들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은 영화로 집약된 사건 하나만으로도 다수의 관객에게 집중과 감성적 공감대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를 지닌다. 즉 영화가 손쉽게 내면화될 수 있는 내러티브 구조와 의미 그리고 상징을 표출하는 특유의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상징성으로 다수에게 강력한 파급을 줄 수 있다.[11]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상호소통을 통한 집단의 정체성의 사회적 연대를 이루고, 정치적 행위로까지 발전한다. 따라서 영화는 집단적 정치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 정체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공사(公私)의 구분을 허물어 버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2.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Fig. 2. A Scene from movie 'Silenced'

3) 역사의 재현화

에드워드 카(E. H. Carr)는 일찍이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12]를 시도하면서 이를 깨닫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이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사회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겪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함의도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 실제로 역사적 경험이 없는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배우게 될 때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기능의 각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화는 우리의 지식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가용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는 화면을 통해 머나먼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여 관객들에게 중요한 쟁점과 시점을 알려주고, 당시 그곳에서 일어난 정치현상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거나 꼭 알아야만 하는 역사나 혹은 정치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영화 <귀향>(2015), <군함도>(2017)등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아픔을 상기시키고, 이를 간접적으로 체화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현재까지도 식민지 침탈 정책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배상의 문제로서 여전히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역사의 재현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미래의 정치현상까지도 예측할 수도 있다. 비현실적이고 다소 황당한 내용을 다루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갈등과 사회적 관심사가 투영된 것이다.[13]



그림 3. 영화 '귀향'의 한 장면
Fig. 3. A Scene from movie 'Spirits' Homecoming'

이렇듯 영화는 당대의 상황이나 역사적 시각 등을 반영하면서 잊혀진 역사적 사건이나 기억들을 재구성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한 시·공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지식으로 흡수되고, 이 개인들이 모여 대중의 집단적 기억으로 상기될 때, 영화를 통한 역사인식과 당대의 사회문제 인식에 대한 파급력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 현재를 반영한다는 말처럼 역

사를 재현한 많은 영화들은 현재의 시사점들로 말미암아 정치화시키기도 한다.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18대 대선을 눈앞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통해 어떤 인물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혹은 어떤 리더십으로 한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현재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간혹 역사의 재현은 활자 그대로 재현할 때 상업적 논리에서는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역사적 사건이나 문제를 그대로 영화에 담아낸다면 그 지루함으로 인해 흥미, 재미 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재현하는 많은 영화 제작자들은 허구성을 입히거나, 실제 기록을 왜곡하면서 관객들의 공감대를 조작할 가능성도 제시된다. 지나치게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왜곡되면 객관적 사실을 잇을 수 있는 영화는 결코 역사 및 정치현상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영화의 특성 때문에 실제 정치현상 그대로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관객들은 영화의 사실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영화가 역사의 경험들을 토대로 대중을 자극하고 얻은 기억과 의미를 통해 새로운 공론을 창출해 낼 수도 있고, 나아가 대중들은 집단적 행동과 정체성을 구성하고 급기야 새로운 정치적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림 4.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한 장면
Fig. 4. A Scene from movie 'Masquerade'

III. 영화를 통한 정치현상의 이해

앞서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영화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들을 영화와 연결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1945년부터 1953년까지 :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의 행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찾아온 것은 독립의 기쁨과 환희보다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에 의한 38도선의 구획이었다. 비단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상은 해방공간 속에서 좌우익의 이념 중 어느 정치집단이 남한에서 주도권을 가지는가의 문제였다. 영화 <태백산맥>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반란 사건이후 전남 벌교가 좌우익 대립이 극대화된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영화 속에서 계엄군들의 토벌에 의해 공산당원들은 칠북리 마을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좌우익이 민중에게 어떻게 각각의 정치집단으로 포섭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밤에는 공산당원들에 의해 우익을 색출하고, 낮에는 계엄군들에 의해 좌익을 색출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그런데 당시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집단은 좌익들이었다. 그 이유는 해방 후 민중들은 국가건설이라는 거시적 목표보다는 자신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문제를 좌익들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즉 친일청산 문제의 해결과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아래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상적 이념을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영화 <태백산맥>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순천 중학교 교사이자 민족주의자인 김범우(안성기)는 영화 곳곳에서 왜 좌익들이 토지개혁을 하고, 거기에 민중들이 열광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소작농 문서방과의 대화에서 문서방은 “좌익들 세상이 되면 지주들 땅을 빼앗고, 우리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자, 김범우는 “그러면 땅을 10마지기만 주고 쌀을 매달 내고 배급을 타 먹거나, 공동농사를 짓고 정해진 배급을 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말한다. 이에 문서방은 “제가 짓는 농사에 제 손으로 관수하는 맛에 농사짓는데,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논에 그놈의 농사가 잘돼 먹것소. 내 텃밭의 배추가 주인 집 텃밭의 배추보다 속살이 더 잘 여문다는 이치가 있는데...” 이에 김범우는 “좌익의 논을 분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오.” 실제로도 당시 민중들은 좌익들에게 많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림 5. 영화 '태백산맥'의 한 장면
Fig. 5. A Scene from movie 'The Tae Baek mountain'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노선을 표방하여 1948년 8월과 9월에 남북한이 각각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2년 뒤 1950년 6월 한가로운 어느 날 이진태(장동진)는 거리에서 구두를 수거하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것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첫 장면이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의 발발이전부터 휴전상태까지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한국전쟁의 내외적 원인과 현상 및 전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교육적 활용이 상당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민중들은 여전히 남북 이념 갈등의 피해자로 보여준다. 특히 이진태의 약혼녀 영신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좌익에 대한 남한 내의 적대적 현상인 ‘보도연맹사건’이 일어난다. 이 장면에서도 좌익 세력은 여전히 남한의 민중들 사이에 오해의 미끼로 잘 스며들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



그림 6.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
 Fig. 6. A Scene from movie 'TaeGukGi: Brotherhood Of War'

따라서 이 당시의 한국 정치는 국가 건설을 목전에 두고 어느 누가 국가의 권력을 쥐게 될 것인가를 위한 투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당의 난립과 인물들의 등장으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좌익이 한국의 대중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한 시사점을 영화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혼란의 시대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자재가 될 수 있다.

3-2 1953년부터 1987년까지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의 실종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하게 된다. 특히 남한에서는 민주체제의 수용과정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정치문화의 풍토로 말미암아 진통을 겪게 된다.[14]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홍경인)의 절대권력에 대한 생성·유지·붕괴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1960년대 초의 한국의 정치현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의 독점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사사오입, 부정선거 등의 권력의 야욕들이 고스란히 엄석대의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엄석대와 이승만 대통령은 억압과 탄압, 회유, 차단, 우민화, 부패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권력은 부패되기 쉽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로드 액톤(Lord Acton)의 말처럼 권력은 자칫 잘못하면 절대화, 자기 목적화 되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시키기 쉽다는 것이다.[15] 이런 맥락에서 엄석대는 6학년이 되었지만, 새로운 담임선생님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정점으로 치달은 결과 학생들 및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4.19혁명을 일으켰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에 이른다. 그러나 영화 속의 엄석대의 몰락과 4.19 혁명은 혁명 미완이라는 귀결에 이른다. 즉 엄석대는 새로운 담임의 등장으로 절대 권력이 붕괴된다는 것은 타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4.19혁명도 계층적 한계, 즉 아래로부터의 결집이 아닌 농민, 어민, 노동자들의 부재의 일부 계층만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완의 혁명이다. 혁명과정 속에서 주체에 대한 역할의 문제가 강력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력의 객체인 한병태의 모습을 통해 당시 한국 대중들이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를 잘 대변하고 있으며, 메리엄의 권력의 구조 및 특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설명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다.[16]



그림 7.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한 장면
 Fig. 7. A Scene from movie 'Our Twisted Hero'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한국은 정치적 리더십의 빈곤을 틈타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한다.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서는 탱크를 타고 온 한 군인이 효자동에서 성한모(송강호)에게 지도를 보며 “청와대가 어디냐”고 묻는다. 이 한 장면의 상징성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반응의 찰나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영화 <효자동 이발사>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대부터 1980년 전두환 정권 수립까지 30여년 세월을 배경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부터 1981년 제 5공화국 출범

까지의 정치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정권의 일방적인 국민의 동원과 희생을 요구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순수한 의무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 <효자동 이발사>는 이러한 무거운 주제들을 해학과 웃음으로 무마시키고 있다. 그 해학의 절정은 1969년 김신조 사건, 북한의 남파공작원들이 ‘마르쿠스 병’이라는 설사병에 걸려 한국 군인에게 발각되는 장면인데, 이는 영화 <실미도>(2003)에서는 사실적으로 다루는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논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영화 <효자동 이발사>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대통령은 일본어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평면도를 경호실장에게 맡기는 장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잘 말해주는 장면들이다. 실제로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서재 옆방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진도실을 마련하여 직접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여 왔다. 이것은 ‘인혁당사건’이 그 하나의 실례이며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서는 남파공작원과 내통한 효자동 주민들과 성한모 아들의 고문 장면으로부터 그 역사적 사건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림 8. 영화 ‘효자동 이발사’의 한 장면
Fig. 8. A Scene from movie ‘The President’s Barber’

3-3 1987년 이후 : 민주 발전을 통한 통일 국가로의 변화

1987년 6.29 민주화 항쟁이후 한국의 정치 현상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권력독재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대의 대중들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한 대중매체의 보급은 대중들을 원자화, 획일화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심리적 조종가로 등장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현대의 민주정치는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독재와 대중들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즉 현실의 정치과정

은 주체자로 되어야 할 시민들이 정치의 단순한 객체로 또는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 <더킹>에서 권력층이 얼마나 부패하고 대중들을 기만하고 대중조작의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역사를 배워야 한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영화 속 대사들 속에서 당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정치계 대형 이슈를 덮기 위해 검찰이 연예인들의 마약, 성 추문 사건을 터뜨린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치사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영화 속 검찰은 한 여배우가 1994년에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가 1998년에 교묘히 흘린다. 실제로 ‘오양 비디오’ 사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사실상 최초의 비디오 유출은 1998년 가을께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1991년에 촬영되었다고 한다. 다만 바로 유출되지 않고, 7년이 지난 이후 대중에 드러났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신(新)한일어업협정’이 있었다.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중간수역(공동수역)으로 인정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협정이다.



그림 9. 영화 ‘더킹’의 한 장면
Fig. 9. A Scene from movie ‘The King’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 탈북자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 정책의 문제점 및 새로운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들이다. 2007년 8월 1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즉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즉 다문화의 유입은 한국 사회 내의 갈등과 차별 억압 등의 갈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 <크로싱>은 지난 2002년 3월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난입했던 북한 이탈주민 25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암담한 현실

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영화 <그물>(2016)은 남북의 뚜렷한 이념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과 북의 권력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60년 이상의 문화 이질성을 겪어 왔기 때문에 탈북 이 탈자들이 한국에 유입되었을 때 겪었을 편견, 배제, 소외 등의 문제와 한국 정착민의 우월의식 등의 사회 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관점에서 영화 <코리아>(2012), <천안함 프로젝트>(2013), <연평해전>(2015) 등의 영화를 통해서 남북의 관계가 분단 이후 대립과 화해, 냉각과 과열 등이 반복되는 정치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연평도 폭격 사건은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과 북한정부의 한국에 대한 외교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무쌍함도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화 <방가방가>(2010), <완득이>(2011) 등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관점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사고의 틀을 마련하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한국내의 타민족 유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혼란과 갈등양상의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영화 '크로싱'의 한 장면
Fig. 10. A Scene from movie 'Crossing'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를 향한 권리와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명제처럼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를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영화가 재현할 수 있는 힘이다. 즉 평범하게 여겨진 사건이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이슈 등을 극적으로 바꾸고 나아가 이를 공론화시켜 정책이나 법적·제도장치까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능력이다. 예컨대, 앞서 설명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영화들에서도 이러한 측면들을 엿볼 수 있다. 2012년 개봉한 <부러진 화살>은 권력의 부조

리에 대응하는 한 개인의 처절한 사투에 대해서 관객들이 공감하고 분노를 양산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재조명되고 사법 권력의 독단에 대한 한국의 법치주의를 비판하면서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를 분출시켰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약속>(2013), <한공주>(2013), <섬, 사라진 사람들>(2015) 등은 개인적 사건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언론에 노출되면서 사건을 재조명하는 계기들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결국 영화 속에서 우리의 관심 밖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때 집단적 공론화가 형성되면, 정치적 정체성의 발현과 이에 대한 정치의 새로운 인식과 시각의 틀을 제공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림 11.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한 장면
Fig. 11. A Scene from movie 'Another Family'

IV. 결 론

일찍이 공자는 '정치란 옳고 바른 것이다'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 일컬었던 것처럼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정치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재 삶에 대한 존재가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가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 자유, 평등, 인권 등의 정치적 개념들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행위 질서를 정의하는 정치를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영화를 통해서 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와 영화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에 지속적이고 커다란 파급력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그 접목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화를 통해 정치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평이나 감상의 차원을 넘어 영화 속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논의를 풀어갈 수 있다는 과정을 앞서 보여주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 보았던 여러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매체의 콘텐츠들 속에도 분명 정치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과 논의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실제로도 오늘날 교육현장에서는 영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

행되는 수업이 학습자들의 관심과 몰입도가 활자를 통한 수업형식보다는 훨씬 더 깊은 집중력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환경에서는 영화 혹은 영상매체를 통해 정치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형식이 학문의 깊이를 저해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생산적 활동의 접근이 보다 손쉽게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영화는 오늘날 그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면서도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오락성을 넘어 정치현상, 사회상, 집단 심리 등을 보여주는 주요한 도구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영화 활용을 통한 학습은 실제 현실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인지적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접적 경험의 한계인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정치적 사건과 이슈 등을 대면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민주화 이후 축소되었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고, 정치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기존에 품었던 정치와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의도, 현상, 사건, 쟁점 등이 더 이상 딱딱함, 불신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을 상쇄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치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NRF-2014S1A5B5A07041935)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Robert W. Gregg, International relations on film, Hanul Publishing Group, p. 18, 2007.

[2] C. H. Ahn, Comtemporay Political History in Korea, SaerownSaramdul, pp. 5~8, 2009).

[3] D. H. Lee, "The narrative space of sound design in film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7 No. 5, p. 394, 2016.

[4] G. Y, Kwon, "Study of Human Body Expression and Fashion Design Appeared in Popular Cultur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12, No.4, pp. 180~181, 2004.

[5] Yu Lotman, Semiotics of Film, Minumsa, p. 82, 1996.

[6] K. I. Lee, "Nationalism in Chinese Movies",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1, No.1, p. 135, 2008.

[7] W. S. Jeong, Literary Policy of Changes and Movies in

Chinese and movi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p. 2, 2002.

[8] Y. G. Lee · J. S. Kim, Hollywood : Industrial and Ideology of Hollywood Movies, The Third Literary History, pp. 71~79, 1992.

[9] N. Y. Kang, Study on Cultural Imperialism in Late 90's Hollywood Disaster Film,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p. 2, 2000.

[10] H. Jo, The Movies are Politics, Inmul, p. 7, 2008.

[11] Robert W. Gregg, International relations on film, Hanul Publishing Group, pp. 21~22, 2007.

[12] E. H. Carr, What is History?, Bumwoosa, 1998.

[13] J. C. Moon, The Mass Society and Modern Society Sodo, pp. 10~11, 2007.

[14] S. W. Lee, Introduction to North Korean Politics, Nanam, pp. 30~35, 2000.

[15] K. C. Lee, Politics, Bobmunsa, p. 247, 2010.

[16] W. T. Kim, Understanding Politics, Hyungseul, pp. 89~98, 1998.



한주희(Ju-Hee Han)

2003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2007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2004년~2013년: 부산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시간강사
2014년~현 재: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영화(Movies), 영상매체(media of image), 정보보호(Personal Information) 등